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박재춘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김성환 (고용노동연수원 박사)**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특성화고,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동시에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예비창업자인 특성화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3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첫째,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진로교육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진로교육은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섯째, 진로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섯째,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진로교육의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여 진로불확실성을 낮추고, 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을 강화하여 내재적 동기부여를 높여야 하겠다. 이때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의 고취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을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진로교육에 창업교육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핵심주제어: 진로불확실성, 진로교육,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1. 서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으로 창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창업자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은 창업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에 몰입하고 있다(김성환 외, 2015).

이처럼 학생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하는 것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미래 환경 또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로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De Raaf, et al., 2009).

즉, 진로불확실성 (Career Uncertainty)은 학생 개인의 경력개발과 개인성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심리적 또는 육체적 적응에도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Daniels et al., 2011).

문제는 많은 국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미래 환경의 복잡

성과 불확실성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이 대안적인 해법이라 주장하기도 그렇다고 막연히 취업을 하라고 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학생들의 창업을 포함한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창업 및 진로관련 학계에서는 창업 등 진로결정에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에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또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예: 인구통계변인, 심리적 특성, 태도변수 등), 조직특성 (예: 조직구조, 조직문화, 전략 등) 및 환경적 특성 (예: 창업문화와 사회적 인식, 창업지원제도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Shapero & Sokol(1982)가 강조한 창업과정에서의 창업자 개인의 지각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의 가능성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변하면서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거나(안승권, 2016), 오히려 더욱 안정지

* 제1저자,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innosapark@dankook.ac.kr

** 교신저자, 고용노동연수원, ksh0828@hanmail.net

· 투고일: 2016-12-27 · 수정일: 2017-02-19 · 게재확정일: 2017-02-26

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실제 행동(예: 창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창업자 개인의 지각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Ajzen(1991)은 계획행동모델에서 개인이 특정 행동(예: 창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자신의 통제력(예: 자기 효능감)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통제력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업의지 및 기업가정신의 영향변인으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진로불확실성)과 통제력(자기결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먼저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Kahneman et al.(1982)은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감수나 모호성 같은 변인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창업자들이 창업 시에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적극적인 성향인 위험감수성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감수성향이 없다면, 진로결정과정은 안정지향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즉, 많은 학생들은 고용이 보장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안정적인 공무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취업을 준비하게 되고, 극히 일부의 학생만이 창업을 준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연구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단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 진로스트레스 등이 장애문제 및 진로문제(김경옥, 2009; 이아라, 2013; 이숙정·유지현, 2009)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되어 있다. 창업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연구는 예비창업자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성격적 특징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부상황을 인식하는 개인적인 지각인 진로불확실성과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육부는 지난 제7차 교육과정 개편(1997.12.30.)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화하고자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개편하면서 ‘진로와 직업’과목을 교양과목군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진로와 직업’의 교육내용이 창업이나 기업가정신이 도외시된 상태에서 취업중심의 내용과 직업체험 등으로 편성되어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화하고자 한 당초의 개편계획을 무색하게 하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진로교육 집중학년제·학기제’에서는 창업과 기업가정신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1998년부터 시작된 취업중심의 진로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진로결정시 자연스럽게 취업이나 진학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이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예비창업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떠한 내적심리 동기(자기결정성)를 거쳐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김성환 외, 2015).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예비창업자의 능동적인 자기결정성도 창업의지를 높이는 주요한 동기요인이라 할 수 있다. Salomon(1984)은 자기결정성의 동기요인인 유능감에 관심을 가지고, 유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높은 성과를 획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예비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진로불확실성이다.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결정성이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의 매커니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진로불확실성

불확실성(Uncertainty)은 ‘현재의 상황 또는 환경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예측할 수 있는 단서나 정보가 부족하고, 다가올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최혜경, 1997). 불확실성은 확실함을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불편하고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직면한 개인들은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Curley et al., 1986).

이처럼 불확실성은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하거나 회피경향을 보이게 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각할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즉, 진로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거나(De Raaf et al., 2009), 학생 개인의 경력개발과 개인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Daniels et al., 2011).

진로불확실성(Career Uncertainty)은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보이지만, Tien et al.(2005)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인식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진로불확실성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Jordaan et al.(2009)은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을 야기하는 모든 요인’이라 하였다. 이처럼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로미결정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라 정의할 수 있다.

문제는 진로불확실성이 진로결정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 개인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Gati & Saka, 2001; Gordon & Meyer, 2002). 즉,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의

경력계획 (Career Planning)과 성공적인 경력결정 (Career Decisions)을 방해하게 된다(Kelly & Lee, 2002; Lopez & Ann-Yi, 2006). 예를 들어, 불확실한 환경에서 학생이 위험감수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진로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진로 의사결정상황에서 불확실한 회피반응이 계속되면, 대안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시각을 놓치게 될 수 있다(Trevor, 2006). 이처럼 진로불확실성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취업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Ronstadt(1985)는 직업경력으로서의 창업에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영역을 창업으로 확장하여,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시조인 Parsons(1909)의 ‘직업선택’ 저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로교육은 초창기에 취업교육 및 취업안내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초기의 개념에서 진로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Bailey & Stadt(1973)는 진로교육을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서 지속적인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진로교육은 현명한 진로선택 (Career Choice)과 진로발달 (Career Development)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 또는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장석민, 2014).

진로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진로교육이 직업지도, 직업교육, 진로상담, 진로지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Career)에 초점을 맞추고 조력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한미희, 2010). 특히 오늘날의 진로교육은 노동시장 정책과의 가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강조(정철영 외, 2015)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진로교육은 학교에 국한되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발달적인 부분을 인식해야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에 국한하기 보다는 취업, 진로, 창업, 은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도 진로교육의 하나란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타인과의 공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김성환

외, 2015). 또한 Ryan & Deci(2000)는 동기화를 무엇인가를 하고자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 말하며, 단순히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Lew, 2009). 즉, 동기는 실제 행동의 출발점이자 방향의 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활력과 조절의 기능을 수반하게 하므로, 개인들의 자기결정성은 내재적 동기부여의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김성환 외, 2015). 따라서 개인들의 내재적 동기부여가 강화될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성이 발휘되므로(김성수·윤미선, 2012),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서도 자기결정성이 강화될수록 창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김성환 외, 2015).

Deci와 Ryan(1985)은 동기수준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는 것이 모호한 상황 하에서 인간 개인의 행동은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외적 통제에서부터 내재적 자기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체계로 개념화된다고 정의하였다(Ryan, Deci & 2000). 특히,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유능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으므로 자율성을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Ryan, 1982). 또한 Ryan & Deci(2000)는 유능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통합적으로 관계성이 개인의 내재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관계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이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2.4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정승화, 2008).

Schumpeter(1934)는 기업경영의 원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며,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가는 창조적 파괴과정으로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기업가를 수익을 극대화하고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역할을 통해서 기업의 자원을 배분하는 행동의 주체이자 혁신을 이끄는 동태적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였다(하규수, 2009). Hisrich & Brush(1986)는 위험감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가치창조의 과정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으며, Kao(1989)는 기업가정신을 사업기회를 인식하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시도라고 하였다. 또한 Zahra(1991)는 기업가정신을 제품과 공정의 혁신 및 시장개척으로 신사업을 창출할 목적으로 행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Drucker(1985)는 새로운 부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변화시키는 혁신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1)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자신에게 적합한 하나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Gati & Saka, 2001).

볼 때, 기업가정신이란 “위험을 감수하며 기회를 추구하고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도전하며 기업의 목표를 극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으로 Timmons(1994)는 기회, 기업가, 자원을 주장하였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핵심개념으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리더십, 책임감 등을 들고 있다(남정민 외, 2014). 또한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으로는 환경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경특성과 조직특성은 외부요인으로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반면,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최종열·정해주, 2008).

2.5 창업의지

창업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결합하며, 혁신을 통하여 가치 있는 조직을 창조 (Creation)해 나가는 것이다 (Vesper, 1990). 사람들이 실제 창업에 관심을 지니고, 실제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창업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의지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창업행동이라기보다는 예비창업자가 미래에 창업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 스스로 평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용희·하규수,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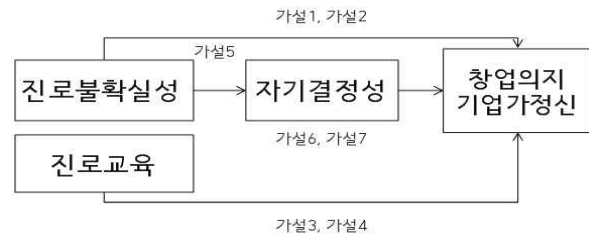
즉, 의지 (Intention)는 특정 행동의 실제 실행여부를 정확하게 예측 및 설명하는 변수로, 어떤 일을 시도하려는 의지나 특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동을 준비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Ajzen, 1991). 따라서 창업의지는 향후 창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김성환·이종훈, 2014).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되며(윤방섭, 2004), 창업의지의 선행연구 역시 창업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최양림, 2012). 먼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내적 통제, 위험감수성, 자기확신, 성취요구, 모호성에 대한 내성, 혁신지향성 등이 실증 (예: Bygrave, 1989; Robinson et al., 1991)되었으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역할 모델, 사회적 지원세력, 창업문화와 사회적 인식, 창업지원제도 등이다(김성환 외, 2015).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이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및 기업가정신의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인 (자기결정성)의 효과를 실증하였다.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3.2 가설 설정

3.2.1 진로불확실성이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높은 모호성 또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다(Lin et al., 2015).

진로불확실성 (Career Uncertainty)은 학생들이 진로결정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사건과 진로결정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이아라, 2013). 따라서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이나 개인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며, 심리적 또는 육체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Daniels et al., 2011). 예를 들어, Trevor(2006)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거나 단기적인 반응을 선택하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을 놓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확실성은 학생 개인의 스트레스, 불안, 공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대응능력을 줄이게 된다(Averill, 1973).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이나,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Davidsson(1995)은 경제-심리적 모델 (Economic-Psychological Model)에서 창업의지의 핵심변인 중 하나로 창업자가 지각하는 창업이라는 진로가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개인적인 확신 (Conviction)’이라 하였다. 즉, 예비창업자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 및 기업가정신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Kuckertz & Wagner(2010)는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이 가능한 경력관리와 경력개발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개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사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상훈·하규수(2016)는 창업성공률, 경영환경 등 객관적 창업환경보다 창업자의 심리특성인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증연구에서 오상훈·하규수(2016)는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정대용·채연희(2016)는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이고 확실한 진로에 대한 인식이나 객관적 창업환경이 창업의지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

미하며, 반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확실하게 지각할 경우에는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면,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진로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감소시킬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2 진로교육이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은 현명한 진로선택 (Career Choice)과 진로발달 (Career Development)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 또는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장석민, 2014). 진로교육의 시조인 Parsons(1909)의 ‘직업선택’저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로교육은 초창기에 취업교육 및 취업안내에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에도 진로교육은 노동시장 정책과의 가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강조(정철영 외, 2015)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진로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 진로체험, 대상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진로교육은 “직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체험 역시 직업체험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 맞춘 이무근(2008)의 고등학교 진로교재인 「진로와 직업」에서도 삶과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로와 진학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창업이나 기업가정신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증연구에서도 Purcell et al.(1999)은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시 대학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 진로교육 수강여부와 진로계획에 대한 열의를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정의정(2014)은 직업탐색이 학생들의 취업불안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은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의 자기인식과 직업에 대한 이해, 취업과의 연계만을 강조한 결과,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을 오히려 감소시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예비창업자들이 수강한 진로교육은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예비창업자들이 수강한 진로교육은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3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감정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예: Creed et al., 2005; Shea et al., 2009)는 진로불확실성(예: 진로미결정)과 학생들의 낮은 자기존중감 (Self-Esteem)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며, Ng & Feldman(2009) 역시 진로미결정이 진로관리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을 줄인다고 하였다. 즉, 진로불확실성은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자기결정성 등 자기개념 (Self-Concept)의 기능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불확실성과 자기개념의 기능적인 측면 중 자기결정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성이론(Ryan & Deci, 2000)에서는 학생 자신의 목표설정에서 자기결정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기결정성이 높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목표(예: 창업, 취업, 진학 등)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기결정성이 개인, 환경 및 사회적 맥락에 좌우된다는 것이다(Ryan & Deci, 2000). 예를 들어, 김주환 외(2006)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환경적 압박변인이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전성희 외(2011)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유능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숙정·유지현(2009) 역시 진로스트레스는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Harren(1979)은 학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자기결정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높은 진로불확실성을 지각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부여가 감소되어 자신의 장래 진로를 능동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자기결정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들의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또는 기업가정신)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인 것처럼, 진로불확실성과 기업가정신(또는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역시 이제 시작단계이다.

창업의지에 대한 모델[예: 창업이벤트3)모델(Shapero & Sokol, 1982), 계획행동이론(Ajzen, 1991)]을 살펴보면, 진로불확실성,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지(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창업이벤트모델에서는 창업이 개인의 지각된 욕구, 지각된 실현가능성 및 행동성향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창업자 개인이 창업을 얼마나 잘 실행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 ‘지각된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서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2) 자기개념의 기능적인 측면은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가치 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김옥란 외, 2013).

3) 창업이벤트는 창업적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Shapero, 1975).

및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핵심변인으로 주장하면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창업의지에 중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Krueger et al.(2000)은 창업이벤트모델의 지각된 실현 가능성과 계획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즉, 창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개인 역량에 대한 믿음은 본 연구의 핵심변인인 자기결정성과 유사하다. 이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동인 자기결정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창업의지 및 기업가정신과 높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Kahneman et al.(1982)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학생이 위험감수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직업으로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불확실한 환경을 학생들이 통제 (Control)할 수 있을 경우, 보다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지각으로 내재적 동기부여가 된 자기결정성은 학생들의 진로불확실성을 통제할 자신감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창업의지 (또는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성과를 높이는 주요 변인인 불확실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동기요인(김성환 외, 2015)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윤방섭(2004)은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유능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Krueger et al.(2000)은 자기결정성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Markman et al.(2002)은 자기효능감이 창업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특히, 오상훈·하규수(2016)는 자신감 또는 자기효능감으로 인식되는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실패부담감이 부분매개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주환 외(2006)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환경적 압박변인이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고, 자기결정성의 하위변인들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Ng & Feldman(2009) 역시 진로미결정이 진로관리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줄이며, 결국 고용기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이 지각하는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감정이나 느낌은 자연스럽게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예비창업자가 지각하는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예비창업자가 지각하는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IV. 실증결과분석

4.1 표본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창업자 (특성화고, 일반 대학생)의 진로불확실성, 진로교육,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모델을 설정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연구대상으로는 수도권에 위치한 특성화고에 재학하고 있는 고교생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어, 다양한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단국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설문에 참여한 예비창업자인 특성화고 192명, 4년제 대학생 189명으로 총 381명을 대상으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410부가 회수되었는데 무응답 및 오류설문지 29부를 제외한 381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4.2 기초통계량

설문에 응답한 예비창업자 381명의 특성은 남학생이 206명 (54.1%), 여학생이 175명 (45.9%)이었다. 또한 특성화고 192명 (50.4%), 4년제 대학생 189명 (49.6%)이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년은 1학년 146명 (76.0%), 2학년 46명 (24.0%)이었으며, 4년제 대학생은 1학년 47명 (24.9%), 2학년 52명 (27.5%), 3학년 51명 (27.0%), 4학년 39명 (20.6%)이다. 특히, 창업에 관한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65명 (17.1%)이었으며, 진로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279명 (73.2%)로 나타났다.

4.3 변수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진로불확실성은 한국적 특징을 반영한 박희락(2009)이 사용한 진로스트레스 척도에서 진로불확실성에 해당되는 5개 측정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정도’, ‘적성에 맞는 진로 미인식 정도’ 등이다.

자기결정성은 Ryan & Deci의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이명희·김아영(200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3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되며, 하위요소별로 6개 항목, 총 18개 측정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정도 (자율성)’,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해 내는 정도 (유능감)’,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정도 (관계성)’ 등이다.

기업가정신은 Miller(1983)와 Zahra(1991) 등이 제시한 3개 차원 (혁신성, 위험추구, 진취성)을 사용한 Yoon(2012)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혁신성, 위험추구, 진취성을 포함한 9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고생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정도’,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이 없는 정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측정도구로는 신혜성(2013), 김용식(2011), 하규수(2009), 윤방섭(2004)의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을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5개의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중업원보다 창업가의 역할을 희망 정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계획을 지닌 정도’등이다.

4.4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4.4.1 신뢰도분석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내적 일치성으로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표 1>, 예비창업자들의 자기결정성(자율성 .782, 유능감 .838, 관계성 .835), 진로불확실성(.924), 기업가정신(.845), 창업의지(.885) 등으로 신뢰도를 충족하였다.

<표 1>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항목수	α계수
자기 결정성	자율성	4	.782
	유능감	6	.838
	관계성	6	.835
진로불확실성		5	.924
기업가정신		8	.845
창업의지		5	.885

4.4.2 타당성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법과 배리맥스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 (Eigen Value) 1 이상으로 정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정도를 나타내 주는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인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자율성 2개 항목(4, 5)과 기업가정신 1개 항목(3)이 요인적재치가 0.4이하로 제거한 후, 2차 요인분석 결과<표 2>,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62.103%를 보이며, KMO 값이 .889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값이 6868.789 (df=561, p=.000)으로 적합하였다.

<표 3>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요인분석결과

구분	요인 적재치	요인							
		1	2	3	4	5	6		
자기 결정성	자율성	자율1	.644					.733	
		자율2	.741					.812	
		자율3	.716					.786	
		자율6	.408					.530	
		유능감	유능1	.656				.679	
			유능2	.481				.470	
	유능3		.523				.620		
	유능4		.628				.660		
	유능5		.534				.700		
	유능6		.613				.698		
	관계성	관계1	.497		.560				
		관계2	.509		.623				
		관계3	.679		.779				
		관계4	.702		.794				
		관계5	.559		.686				
		관계6	.612		.733				

구분	요인 적재치	요인					
		1	2	3	4	5	6
진로 불확실성	진로1	.757	.860				
	진로2	.807	.891				
	진로3	.798	.869				
	진로4	.822	.896				
	진로5	.654	.788				
기업가 정신	기업1	.409	.594				
	기업2	.478	.667				
	기업4	.601	.693				
	기업5	.459	.613				
	기업6	.577	.665				
	기업7	.562	.556				
	기업8	.530	.617				
	기업9	.531	.692				
	창업의지	의지1	.640			.686	
의지2		.778			.860		
의지3		.829			.887		
의지4		.749			.850		
의지5		.636			.780		
아이겐 값		4.044	4.028	3.571	3.553	3.403	2.516
분 산(%)		11.895	11.848	10.504	10.449	10.008	7.399
누적분산(%)		11.895	23.743	34.247	44.696	54.704	62.103

4.5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에 의하면<표 4>,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 (r=-.283, p<.01) 및 기업가정신 (r=-.162, p<.01)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r=.048, n.s)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자기결정성은 기업가정신 (r=.533, p<.01) 및 창업의지 (r=.104, p<.05)와 정(+)의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r=.356, p<.01) 역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창업교육은 창업의지 (r=.183, p<.01)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기업가정신 (r=.085, n.s)과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진로교육은 창업의지 (r=.005, n.s) 및 기업가정신 (r=.076, n.s)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1.창업 교육	1					
2.진로 교육	.048	1				
3.진로 불확실	-.091	-.061	1			
4.자기 결정성	.076	-.023	-.283**	1		
5.기업가 정신	.085	.076	-.162**	.533**	1	
6.창업 의지	.183**	.005	-.048	.104*	.356**	1
평균	.1789	.7323	3.0042	3.6320	3.3151	2.6268
편차	.4039	.4434	1.0206	.5172	.6049	.8708

* 0.05,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4.6 가설검증

먼저,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및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검

증한 결과, 먼저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5의 모형3>.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기업가정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표 6의 모형 3>.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둘째, 진로교육이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주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교육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표 5의 모형2>.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들이 수강한 진로교육은 기업가정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6의 모형2>.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셋째, 진로불확실성과 자기결정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표 5의 모형 1>, 예비창업자들의 진로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넷째, 창업의지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매개검증결과<표 5>, Baron & Kenny(1986)의 첫째 조건은 모형 3에서 진로불확실성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건 2에서는 진로불확실성이 자기결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건 3은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때, 독립변수(진로불확실성)와 매개변수(자기결정성)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모형 2에 비해 작으면 부분매개역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역할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건 3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로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함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매개검증결과<표 6>, 첫째 조건인 독립변수(진로불확실성)와 종속변수(기업가정신)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둘째 조건 역시 독립변수(진로불확실성)가 매개변수(자기결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완전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표 5> 진로불확실, 자기결정성, 창업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1 (자기결정)	모형2 (창업의지)	모형3 (창업의지)	모형4 (창업의지)
(상수)	3.902(31.371)	2.840(17.797)	2.830(13.464)	2.079(5.213)
대학	.183(2.869)**	-.154(-2.413)*	-.154(-2.411)*	-.175(-2.722)**
남성	.061(1.215)	.154(3.093)**	.154(3.068)**	.147(2.939)**
학년	.000(.002)	-.097(-1.539)	-.097(-1.538)	-.097(-1.546)
창업교육	.004(.077)	.238(4.637)***	.238(4.618)***	.238(4.633)***
진로교육	.032(.567)	-.114(-2.034)*	-.114(-2.028)*	-.118(-2.103)*
진로불확실	-.280(-5.643)***		.004(.074)	.036(.692)
자기결정성				.114(2.211)*
R2	.111***	.105***	.105***	.116***

* p < .05. ** p < .01, *** p < .001 ()는 t값임.

4) Kenny(2014)는 매개변수를 통제된 상황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c'라 할 때, c=c'+ab'가 성립되면, c의 유의성이 필요하지 않고, a와 b가 유의한 것만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불일치매개(inconsistent mediation)라 하며, 불일치매개도 여전히 매개라 하였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Kenny(2014)와 박선미·박명기(2014)를 참고하기 바람.

<표 6> 진로불확실,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1 (자기결정)	모형2 (기업가정신)	모형3 (기업가정신)	모형4 (기업가정신)
(상수)	3.902(31.371)	3.201(28.012)	3.440(22.972)	.938(3.884)
대학	.183(2.869)**	-.053(-.801)	-.049(-.752)	-.148(-2.636)**
남성	.061(1.215)	.169(3.280)**	.151(2.928)**	.115(2.629)**
학년	.000(.002)	-.023(-.356)	-.021(-.328)	-.026(-.471)
창업교육	.004(.077)	.097(1.821)	.085(1.598)	.078(1.732)
진로교육	.032(.567)	.034(.591)	.030(.521)	.015(.317)
진로불확실	-.280(-5.643)***		-.125(-2.440)*	.025(.565)
자기결정성				.549(12.170)***
R2	.111***	.048**	.063***	.331***

* p < .05. ** p < .01, *** p < .001 ()는 t값임.

Sobel test 검증결과<표 6>, 창업의지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소벨검증은 .05 유의도 하에서 z값이 -2.06으로 1.96보다 큰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 6은 지지되었다. 또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소벨검증은 .01 유의도 하에서 z값이 -5.14으로 2.58보다 큰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 7 역시 지지되었다.

<표 7> Sobel test 결과

구분	A	B	SEa	SEb	Z
진로불확실→자기결정성→창업의지	-.142	.192	.025	.087	-2.06*
진로불확실→자기결정성→기업가정신	-.142	.643	.025	.053	-5.14**

* p < .05. ** p < .01, 비표준화 계수임.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학생의 진로불확실성, 진로교육,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결과, 첫째,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기업가정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류미경·김재철(2016)의 연구에서 진로탐색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로불안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즉,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의 위험감수 및 도전정신을 대표하는 기업가정신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불확실성의 효과를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객관적 창업환경보다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에 더 높은 영향을 준다는 오상훈·하규수(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 불확실성은 창업의지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학생들의 진로경로가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기업가정신 등 창업교육 및 창업관련 지원정책의 영역을 대학과 더불어 특성화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교육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국내 진로교육은 노동시장 정책과의 가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강조(정철영 외, 2015)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진로교육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창업 및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창직)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국내 진로교육이 직업과 취업을 강조한 나머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진로의 다양성이나 학생들의 도전정신 등을 고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창업관련 학회에서도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초중고 및 대학의 진로교육교과목에 편성된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의 교육내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Ronstadt(1985)의 주장처럼, 직업경력 차원에서 창업이 진로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해당부처(교육부, 중소기업청)에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핵심내용이 진로교육 교과목에 편성되도록, 진로교육 개편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진로교육 집중학년제·학기제’에도 초중고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의 이해를 확장하고자, 창업관련 학회에서 초중고 진로교육 집중학년제·학기제에 활용할 기본교재 또는 기본프로그램인 ‘기업가정신 및 창업(가칭)’을 개발, 지원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진로불확실성(예: 진로미결정)과 학생들의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자기개념(Self-Concept)의 기능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예: Creed et al., 2005; Ng & Feldman, 2009; Shea et al.,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예비창업자가 지각하는 진로의 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 등 긍정적인 자기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마련(예: 진로불확실성의 원인분석, 진로상담, 진로교육, 기업가정신교육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실증하였다.

선행연구는 창업자 개인특성과 창업의지(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의 매개 또는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창업의지(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하나인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또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을 완전매개로 하여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즉,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을 완전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진로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 등 긍정적인 자기개념이 부족할 경우, 학생들은 도전적인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예비창업자들이 불확실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을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진로불확실성과 자기결정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기결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설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종단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진로불확실성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진로 불확실성 측정도구를 박희락(2009)가 사용한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진로불확실성 5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진로불확실성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지각하는 일반적인 불확실성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진로불확실성의 측정도구 개발과 이를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과 자기결정성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예: 김성환 외, 2015)가 주장한 기업가정신→창업의지의 관계를 간과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또는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의 확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수강유무로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질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진로교육의 만족도, 진로교육전후 비교 연구, 사례연구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

김경욱(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1(2), 501-519.

김성수·윤미선(2012), 자기결정성이론의 연구 동향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육학회*, 50(4), 77-106.

김성환·복경수·박재준(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5-26.

김성환·이종훈(2014), 공기업 직원의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창업의지 간의 구조관계분석, *벤처창업연구*, 9(6), 91-99.

김옥란·김원일·장동원(2013), 군 병사의 자기복잡성과 우울 간의 관계: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14(5), 2715-2733.

김용식(2011),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주환·김은주·홍세희(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남정민·김성환·방누수(2014), *기업가정신과 창업* 서울: 북넷.

류미경·김재철(2016), 고등학생의 진로 불확실성 수용과 진로의사 결정을 위한 수용전념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 1-28.

박선미·박병기 (2014), 매개효과 연구의 동향분석과 새로운 방향 탐색, *교육심리연구*, 28(1), 41-70.

박희락(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태도 성숙의 예측: 진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성(2013), *외식창업조리교육의 특성이 기업가정신함양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윤백중(201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명희·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22(4), 157-174.

이무근(2008), *진로와 직업* 서울: 교학사.

이아라(2013), *진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회피 기반 처치가 한국 대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숙정·유지현(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3.

장석민. (2014), 진로교육의 기본개념과 철학 및 실천방향 탐색, *미래교육학연구*, 27(2), 29-56.

전성희·신미·유미숙(2011),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청소년학연구*, 18(1), 275-298.

정대용·채연희(2016),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대한경영학회*

29(3), 467-488.

정승화(2008), *벤처창업론*, 서울: 박영사.

정용화·하규수(2012), 예비창업자 개인적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예비창업자 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유통경영학회*, 15(4), 41-53.

정의정(2014), Bizcool 창업교육과 연계한 진로탐색교육 효과분석, *벤처창업연구*, 9(3), 89-95.

정철영·정진철·이종범·정동열·임효산·이서정·임정훈(2015),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28(3), 155-171.

최양림(2012),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종열·정해주(2008), 경영학 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213-230.

최혜경(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규수(2009), *기업가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 의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미희(2010),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 개발 및 효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n, S. K.(2016),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te thesis, Choongang University.

Averill, J. R.(1973), Personal control over aversive stimuli and its relationship to stress, *Psychological bulletin*, 80(4), 286.

Bailey, L. J. & Stadt, R. W.(1973),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es to Human Development*.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ygrave, W. D.(1989), The entrepreneurship paradigm(I): a philosophical look at its research methodolog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 7-26.

Chang, S. M. (2014), Study on Concept, Assumption and Necessities & Purposes of Career Education,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27(2), 29-56.

Choi, H. K.(1997), *(The) Dysfunctional effects of chronic worry on problem-solving*, Doctorate thesis, Choongang University.

Cheong, Y. H. & Ha, K. S.(2012), A study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KOREADIMA*, 15(4), 41-53.

Chung, D. Y. & Chae, Y. H.(2016), The Effect of Employabilit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 on Double Mediation Role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9(3), 467-488.

Choi, Y. L.(2012),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of retired office-workers*, Doctorate thesis, Hoseo University.

Choi, J. Y. & Jeong, H. J.(2008), A Study On Effect Of Management Education To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KAHRM*, 15(3), 213-230.

- Chung, S. H.(2008), *Business Venturing for wealth creation*, Seoul: Bakyoungsa.
- Creed, P. A., Prideaux, L. A. & Patton, W.(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areer decisional states in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397-412.
- Curley, S. P., Yates, J. F., & Abrams, R. A.(1986), Psychological sources of ambiguity avoida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8(2), 230-256.
- Daniels, L. M., Stewart, T. L., Stupnisky, R. H., Perry, R. P. & LoVerso, T.(2011), Relieving career anxiety and indecision: The role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ceived control and faculty affiliation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4, 409-426.
- Davidsson, P.(199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trieved from <http://eprints.qut.edu.au/2076/>
- Deci, E. L. &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 De Raaf, S., Dowie, M. & Vincent, C.(2009), *Improving career decision making of young workers: Design of a randomized experiment*, Available at: http://www.srdc.org/uploads/careermotion_design_rpt.pdf
- Drucker, P.(1985), Purposeful Innovation and the Seven Sources for Innovative Opportun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30-36.
- Gati, I. & Saka, N.(2001), High School students' career-related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3), 331-340.
- Gordon, L. & Meyer, J. C.(2002), Career indecision amongst prospective university student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2(4), 41-47.
- Ha, K. S.(2009), *A study on the cost of entrepreneur's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te thesis, Hanyang University.
- Han, M. H.(2010), *A study to develop and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Doctorate thesis, Dongguk university.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isrich, R. D. & Brush, C. D.(1986), *The woman entrepreneur: Starting, managing, and financing a successful new business*. London: Lexington Books.
- Jeon, S. H., Shin, M. & Yoo, M. S.(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1), 275-296.
- Jung, C., Jeong, J., Lee, J., Jeong, D., Lim, H., Lee, S., & Lim, J.(2015), Career Education in South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155-171.
- Jung, E. J.(2014), Analysis of the Bizcool-Connected Career Exploration Education Effective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3), 89-95.
- Jordaan, Y., Smithard, C. & Burger, E.(2009), Comparing levels of career indecision among selected honours degree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Pretoria, *Meditari Accountancy Research*, 17(2), 85-100.
- Kao, J. J.(1989), *Entrepreneurship, Creativity and Organization: Text, Cases, and Readings*,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Kelly, K. R. & Lee, W.(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s, *Journal of Career Behavior*, 61(2), 302-326.
- Kahneman, D., & Tversky, A. (1982). *Intuitive prediction: Biases and corrective procedures*. In D. Kahneman, P. Slovic, & A. Tversky (Eds.),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pp. 41-12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D. A.(2014), *Mediation*, <http://davidakenny.net/cm/mediate.htm>
-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Kim, J. H., Kim, E. J. & Hong, S. H.(2006),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KEPA*, 20(1), 243-264.
- Kim, K. W.(2009), The Effect of Self-Efficacy,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chievement Goal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2), 501-519.
- Kim, O. R., Kim, W. & Jang, D.(2013),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lexity and Depression among Military Soldiers: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5), 2715-2733.
- Kim, S. S.(2010),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Korea and China*, Doctorate thesis, Hoseo University.
- Kim, S. H., Bok, K. S. & Park, J. C.(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 Kim, S. H. & LEE, J. H.(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Public sect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91-99.
- Kim, S. S, & Yoon, M. S.(2012) Trend and meta-analysis for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its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4), 77-106.
- Kim, Y. S.(2011),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Korean Career Officers Expected for Retire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 Assistance Programs*, Doctorate thesis, Hoseo University.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Kuckertz, A. & Wagner, M.(2010), The influence of sustainability orient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vestigating the role of business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5), 524-539.
- Lee, A. R.(2013), *Effect of acceptance-based interventions regarding possible negative outcomes of career uncertainty o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of Korean college students*, Doctorate thesis, Seoul university.
- Lee, J. H. & Jyung, C. Y.(2010), Variables Associated with

- Employment Barri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2(1), 25-47.
- Lee, M. H. & Kim, A. Y.(2008),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4), 157-174.
- Lee, M. K.(2008), *Career & Vocation*, Seoul: Kyohaksa
- Lee, S. J. & Yu, J. H.(2009), A Causal Model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Asian Women*, 48(2), 35-63.
- Lew, K. H.(2009),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 based on the theory of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 Extrinsic Motivation on a Creative Personality of Primary School Students,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9(2), 69-88.
- Lin, S., Wu, C. & Chen, L. H.(2015), Unpacking the role of self-esteem in career uncertainty: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3), 231-239.
- Lopez, F. G. & Ann-Yi, S.(2006),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in three racial/ethnic group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29-46.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arkman, G. D., Balkin, D. B. & Baron, R. A.(2002), Inventors and new venture formation: The effect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regretful think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s*, 27(2), 149-165.
- Nam, J. M., Kim, S. H. & Bang, N. S.(2014), *Entrepreneurship & Start-up*. Seoul; Booknet.
- Ng, T. W. H. & Feldman, D. C.(2009), Personality, social relationships, and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identity co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4(4), 309-332.
- Oh, S. H. & Ha, K. S.(2013),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8), 143-157.
- Park, H. R.(2009), *Predicting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from Maladaptive Perfectionism via Career Stress and Use of Coping Strategie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Park, S. M. & Bak, B. G.(2014), A Trend Analysis of the Mediation Effect Researches and A Suggestion for the New Direction of Them,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8(1), 41-70.
- Parsons, F.(1909), *Choosing a vocation*, Houghton Mifflin.
- Purcell, K., Pitcher, J. & Simm, C.(1999), *Working Out? Graduates' Early Experiences of the Labour Market*, Manchester, Careers Services Unit.
- Robinson, P. B., Stimpson, D. V., Huefner, J. C. & Hunt, H. K.(1991),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5, 13-31.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ntrepreneurial education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summer 1985, 7-23.
- Ryan, R. M.(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50-461.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68, 69-76.
- Ryoo, M. K. & Kim, J. C.(2016),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acceptance-commitment counseling program and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career decision and acceptance of career uncertainty f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 1-28.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lomon, G.(1984), Television is "easy" and print is "tough": The differential investment of mental effort in learning as a function of perceptions and attribu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647.
- Shapiro, A.(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6), 83-88.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hea, M., Ma, P. W. W., Yeh, C. J., Lee, S. J. & Pituc, S. T.(2009), Exploratory studies on the effects of a career exploration group for urban chinese immigrant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 457-477
- Shin, H. S.(2013), *The effect of food service and cooking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spirits and restaurant foundation*, Master's degree thesis, Sejong University.
- Tien, H. S., Lin, C. & Chen, S.(2005), A grounded analysis of career uncertainty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in Taiwa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2), 162-174.
-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4th eds. Irwin/McGraw-Hill, Boston, MA.
- Trevor R. E.(2006), Are you sure? the role of uncertainty in career,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3, 98-116.
- Vesper, K. H.(1990),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Yang, J. H.(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Contextu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ABE*, 30(1), 25-42.
- Yoon, B. J.(2012), *The effects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 student*, Doctorate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10.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ive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259-285.

The Effect of Career Uncertainty and Career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otential Entrepreneur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Park, Jae-Chun*
Kim, Sung-H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uncertainty and career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otential entrepreneur in Korea. A total number of 381 potential entrepreneu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Statistics 22.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reer uncertaint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career uncertainty had a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Third, career educ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 career edu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ship. Fifth, career uncertainty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determination. Sixth, self-determinism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uncertain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eventh, self-determination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uncertainty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scope of career education of students by lowering the uncertainty of career and reinforcement of intrinsic motivation through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efforts to includ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career education should be concurrently accompanied by efforts to improve self-determination of potential entrepreneurs.

Keywords: Career Uncertainty, Career Education,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innosapark@dankook.ac.kr

** Ph.D.,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ksh0828@hanmail.net